

# 이화약품주식회사

"효율적, 적극적, 유기적" 3point 새로운 비전 제시

〈편집부〉

“세계 최고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보급하여 국내 축산농가 및 양어농가,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좋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화약품주식회사(대표 이정협).

지난 1977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이화약품(주)는 국내 동약업계 중견의 위치에서 있는 업체로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축산 및 수산에 이르는 우수한 품질의 수용성 산제, 사료첨가제, 소독제 및 수입완제품 등 7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엄격한 생산관리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제품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사의 브랜드 제품은 곧 경쟁력이다**

이화약품은 설립 이후 25년간 가축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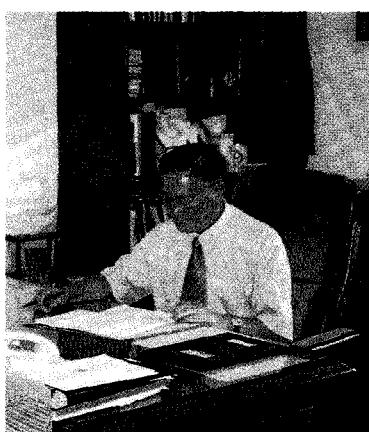
급함으로써 나아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소명 아래 지난 1982년 3월 독일의 훼스트(HOECHST)社와 기술 제휴를 통해 초강력 성장촉진제인 「플라보마이신(Flavomycin)」을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성장촉진제의 대명사이자 이화약품의 간판 제품으로 내성균을 파괴시키는 작용기전으로 약제에 대한 내성 및 교차내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오랫동안 축산농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사료효율 개선, 출하일수 단축, 산란율 증가, 연변방지, 스트레스 및 세균성 질병 예방 등에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정협 사장은 “이외에도 독일 전통의 소독제 전문회사인 골드스미스(GOLDSCHMIDT)社와 술케엔마이어(S&M)社와의 제휴로 태고

(Tego) 시리즈 개발 및 올비넬(Orbivet) • 올비넬알씨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독제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닭에서의 CRD 및 CCRD, 대장균감염증 등에 효능을 지닌 전문 치료제 「스페리트론」, 양돈과 축우에서의 대표적인 구충제 「파나쿠어산」 등 이화약품만의



이화약품(주) 이정협 대표



이화약품의 간판 제품인  
플라보마이신 (성장촉진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판매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이렇게 오랫동안 양축가에  
게 끊임없는 러브콜(love

call)을 받는 제품, 곧 자사의 간판 제품은 회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수단임과 동시에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오는 11월 GMP 기준에 맞춘 신축 공장 완공 예정

현재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매년 5~10%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국내 동약시장은 여기에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주사제, 액상제제 등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우수업체(GMP) 의무화를 실시,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확충 등을 통해 선진국 제품과의 품질비교시 뒤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이화약품이 빠질 수는 없다.

이정협 사장은 20여년간 자신과 동고동락한 현재 사옥을 과감히 버리고(?) GMP 기준에 맞춰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소재 공장을 신축, 11월 완공 예정이다.

이정협 사장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항생제 대체물질 연구로 효소생균제 등 바이오 상품 개발과 애완견 시장으로의 영업확대, 축산용 동약회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여 국내 육계농가를 비롯 양축가, 양어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렇게되면 생산규모도 현재 일일 20톤에서 50톤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금 이화약품은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비전을 회사의 비전 안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투자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강한 기업”, 세계시장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제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기업”, 내부적으로 부서간, 대외적으로는 고객간의 유기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고객의 기대에 앞서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유기적이고 성실한 기업”을 목표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 변신의 완성품이 얼마만큼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